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산림·환경·농지 조례 초안 내달중 내놓을 것”	1
강원도민일보	03면	강특법 위임조례 TF 가동… 내년 3월 도 조례 구체화 목표	2
KBS 춘천	온라인	‘강원특별법 조례 전담반’ 첫 회의...조례 제정안 논의	2
춘천MBC	온라인	강원특별법 조례 재개정 첫 전체회의	3
CBS	온라인	강원도의회,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내실 강화'	3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전담반 운영	4
강원도민일보	23면	정선 함백산 만항재·자장율사 순례길 걸으며 힐링 만끽	5
강원도민일보	23면	"정암사 창건의의 되새기며 상생실천 통합의 장"	5
강원도민일보	04면	춘천 사북면 '7남매 가족' 농사돕기 이장단 뭉쳤다	6
江原日報	16면	화천토마토축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브랜드 가치 재확…	6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특자도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1위 춘천 성수고	7
江原日報	14면	태백 황지야시장 개장식	7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속 무대 누비며 추억 한아름	8
江原日報		[포토뉴스]‘안전한 수산물’ 판매활성화 위한 한마음대회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원제용.이승…	9
강원도민일보	02면	'공직 부적합자 거른다' 공채 면접인원 늘린 강원도	10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6조원 규모 접경지역 발전계획 변경안 제출	10
강원도민일보	10면	장기 방치 옛 원주역 '철도정원' 만든다	11
강원도민일보	09면	근화동 역세권 개발사업 내달 예타신청 고심	1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재난안전특교세 1억2500만원 확보… 폭염 대응 강화	12
江原日報	04면	역대급 폭염 1주일째… 道 대응 강화나서	12
강원도민일보	04면	전국서 가장 더운 강릉?… "관측소 위치 따라 기온 큰 차이"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소비자물가 강원 최고 언제까지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한국전쟁 영웅 김동석 재조명해야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 출신 의원들, 9월 정기국회서 치열함 보여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묻지마 범죄’,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江原日報
2023년 08월 07일 (월)
종합 03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산림·환경·농지 조례 초안 내달중 내놓을 것"

자치도의회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TF 첫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선다. 전담팀을 구성하고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산림·환경·농지 분야 조례 초안을 낼 예정이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지난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TF(이하 전담팀)'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강원자치도의원·전문위원·정책지원관, 강원자치도 산지이용·환경특례·농지제도관리TF팀, 특별자치추진단 법제지원팀, 정윤희·한영한·강종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환경·농지 분야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를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 제정 총괄, 도의회는 도민 의견 수렴과 반영, 강원연구원은 조례안에 대한 논리와 실증 사례 분석 등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전담팀은 이날부터 조례안 확정 시까지 매월 두 차례 분야별 자체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매월 한 차례 전체 회의를 열 방침이다.

내년 6월8일 시행될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중 도조례로 정할 사항을 위임한 조항은 총 31개다. 이 중 산림·환경·농지 분야 관련 조례는 15개로 전담팀은 그중 까다로운 8개 조항의 조례 제정에 집중한다. 8개 조례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다.

권혁열 강원자치도의장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림·농지·환경 분야 조례 제정 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도의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동시에 머리를 맞대 특별법 제정 효과를 도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종합 03면

강특법 위임조례 TF 가동… 내년 3월 도 조례 구체화 목표

1차 전체회의서 31개 조문 논의
산지·환경·농지분야 여론수렴
농업진흥지역 해제 당위성 마련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TF(전담조직) 1차 전체회의가 지난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도 조례' 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강원연구원은 지난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의 위임조례 제정 TF(태스크포스·전담조직)를 구성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첫 회의에선 내년 6월 8일 시행될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가운데 도 조례 위임 사항을 담은 31개에 대한 조례 제정 방안이 논의됐다.

위임조례 전담팀은 산지·환경·농지 분야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지역별 여론수렴, 지역 사례 분석 등에 나서게 된다.

강원특별법이 명시한 '도 조례' 제정 사항은 지역 여론 수렴 작업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특별법 제35조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등을 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역시 도 조례 제정 사항이다. 강원특별법에 4000만㎡ 규모로 해제 면적이 한정된 만큼, 18개 시·군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이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과 해제 당위성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환경 등 보존자원 지정과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역시 도 조례 제정 사항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감축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만큼 향후 조례 제정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한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위임조례 전담팀은 3개 분야 15개 조항에 명시된 조례를 내년 3월까지 구체화하는 게 목표다. 전담팀엔 산지이용·환경특례·농지제도관리TF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정책지원관,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포진했다. 도의원들은 지역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권혁열 의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도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역시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호 도자치법령과장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했다. '강원도 생각만큼 시행령에 담도록 갈 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설화 lofi@kado.net

KBS 춘천
2023년 08월 04일 (금)
강원

'강원특별법 조례 전담반' 첫 회의...조례 제정안 논의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늘(4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특별법 도 조례 제?개정 특별 전담반' 1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산림?농지 전담팀과 도의회 정책지원관, 강원연구원 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년 6월 8일 시행될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가운데 도 조례 위임 사항을 담은 31개에 대한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송승룡

춘천MBC

2023년 08월 04일 (금)
강원

강원특별법 조례 재개정 첫 전체회의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앞서
'조례 제·개정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오늘(4일)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강원도 환경·산림·농지 전담팀과
도의회 정책지원관,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강원특별자치도법
84개 조문 가운데 31개 조례 위임 조항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민 생활과 직접 닿아있는
환경·산림·농지 분야는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도민 의견이 직접 반영돼야 하고
전문가의 참여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특별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강화길

2023년 08월 04일 (금)
강원

CBS

강원도의회,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내실 강화'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전문가 TF 가동, 도민 소통 강화, 도의원 의견 반영 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장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권혁열 의장)가 내실 있는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TF팀 가동에 나섰다.

도의회는 4일 TF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계획 및 TF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3개분야(산림, 농지, 환경) 조례 제정 시 도민의 생활 현장 상황을 가장 잘아는 도의원 의견을 조례 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31개 중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림?농지?환경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도민과 많은 소통을 하고 내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일 전까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연합뉴스

2023년 08월 04일 (금)
종합

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전담반 운영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전담반 1차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강원연구원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꾸린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전담반(TF)' 1차 회의를 했다.

TF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녹지, 환경 분야와 관련해 강원특별법에서 위임하는 조례 제정 시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조례 제정을 위해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임 조례 제정 계획과 TF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총괄하고, 도의회는 도민 의견 수렴과 반영 역할을 하며, 연구원에서는 조례안과 관련한 논리와 실증사례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아 빈틈없는 조례를 만든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31개 중 도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3개 분야에 관한 조례 제정 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누리일보, 신한뉴스 등 58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인물 23면

정선 함백산 만항재·자장율사 순례길 걸으며 힐링 만끽

본지 주관 치유·명상 트레킹
야생화축제 연계 관광브랜드화
군 "지속가능 관광 적극 육성"

함백산 치유·명상 트레킹행사가 지난 5일 정암사 자장율사 순례길에서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천웅 정암사 주지스님, 이철규 국회의원, 최승준 군수, 이상호 태백시장,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지역기관단체장,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선 폐광지역 문화유산을 통한 고원관광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된 함백산 치유·명상 트레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이 주최하고 정선문화원·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함백산 만항재와 정암사 자장율사 순례길에서 진행된 함백산 치유·명상 트레킹은 많은 외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참가, 치유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트레킹 행사는 고한 함백산야생화축제(7월29일~8월6일)와 정암사 개산문화제(8월4~6일)와 연계한 운탄고도 홍보, 국보 수마노탑과 천년고찰 정암사 문화가치 제고를 통한 고한·사북 관광 브랜드화 사업 추진력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함백산야생화축제기간동안 만항재 일원과 운탄고도 코스(만항재~약수터~하이원CC 갈림길 구간 9.5㎞)를 걸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암사를 찾은 신도들과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은 개산문화제 기간동안 정암사에서 열린 자장율사 순례길 코스(수마노탑~적조암~적조암 입구 3.9㎞)인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자장율사의 불심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지난 5일 열린 자장율사 트레킹 코스에는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천웅 정암사 주지스님, 이철규 국회의원, 최승준 군수, 이상호 태백시장, 전영기 군의장, 김영덕·송수옥·조현화 군의원,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정연원 정선경찰서장, 이태희 고한지역개발주민 대표이사, 신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폐광지역 관광 브랜드 육성을 위한 창작뮤지컬 공연도 열린다. 정암사 수마노탑을 통한 정선의 아름다움과 함께 폐광이후에 살아있는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작뮤지컬 공연이 오는 11월 중 정선아리랑센터에서 열린다.

김재성 군 문화체육과장은 "함백산 치유명상 트레킹은 국보 문화유산을 활용한 폐광지역 관광 브랜드화사업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인물 23면

"정암사 창건의의 되새기며 상생실천 통합의 장"

정암사 개산문화제 성료

정선 정암사 개산문화제가 지난 4~6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천웅 정암사 주지스님, 이철규 국회의원, 최승준 군수, 이상호 태백시장, 전영기 군의장,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지역기관사회단체장,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장율사의 유지를 계승하고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정암사개산문화제가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정암사 창건 1378주년을 맞아 지난 4~6일 개최된 개산문화제는 2020년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계기로 처음 시작, 올해 4년째를 맞이했다. 5일 정암사에서 열린 개산대재에는 이철규 국회의원, 최승준 정선군수, 이상호 태백시장, 전영기 정선군의장, 김기철 도의원,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지역기관·사회단체장,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산어장 인묵스님의 범패 시연 등 불교의식이 진행됐다. 법문은 조계종 4교구 교구장인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이 진행했다. 정념스님은 자장율사의 수행 일화를 소개한 후 "지구촌이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분별의 마음으로서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며 "정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정암사가 국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춘수 시인의 '꽃'을 낭송하며 법문을 마쳤다. 정암사 주지 천웅스님은 "정암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역사와 문화,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국내 대표 불교 성지 정암사에서 자장율사의 창건 의의를 되새기며 상생을 실천하는 통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4일에는 만항재 정상 1330m 산상화원에서 '함백산 풍류-말과 멋' 문학행사로 전야제를 가졌다. 시인 리산·강정·박제영·전윤호·박정대 시인, 김도연 소설가의 시와 산문 낭독이 이어졌다. 정선군립예술단 원으로 활동중인 최진실 소리꾼이 아리랑 가락을 선보였고, 가수 박경하는 최근 별세한 강기희 소설가의 시 '스님은 출타 중'을 음악으로 처음 선보였다. 개산문화제는 탄광 희생자와 강원랜드 등 지역발전의 이면에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이들을 위한 함백산 위령제, 현대무용 퍼포먼스 '심우도-마음을 찾아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다양성의 날 행사, 산사음악회 등으로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유주현·김진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종합 04면

춘천 사북면 '7남매 가족' 농사돕기 이장단 뭉쳤다

이장협, 제초작업·축하금 전달

사북면이장협의회는 지난 5일 박찬흥 도의원, 권주상 시의회 부의장, 김용갑, 권희영 시의원과 함께 전동훈 가일리 이장 밭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5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했다.

속보=춘천 사북면 가일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일곱번째 아이를 향한 지역사회의 축복이 이어지는 가운데(본지 7월 23일 웹보도) 춘천 사북면 이장단이 부부가 일구는 밭 일손 돕기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북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5일 박찬흥 도의원, 권주상 시의회 부의장, 김용갑·권희영 시의원과 함께 가일리 이장인 전동훈씨와 류사라 부부의 밭 일손돕기 농촌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밭에 모여 제초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이장협의회는 면민들과 함께 모은 500만원의 축하금도 이 부부에게 전달했다. 김석포 사북면 이장협의회장은 "막둥이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좋은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역각계각층에서도 7남매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앞서 춘천시립도서관은 이 부부에게 7남매 연령대에 맞게 유아용·어린이용·청소년용 책을 각각 준비, 북스타트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춘천 거두농공단지에 공장을 둔 일동후디스도 최근 1년간 분유 후원을 약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기관장 모임인 위봉회(회장 김진태 지사)도 이 부부가 운영하는 감자빵 판매 지원에 나섰다. 이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집수리 지원, 자녀장학금 혜택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LH와 임대주택 지원도 논의하고 있다.

전동훈·류사라 부부는 스무살 첫째 태랑군을 시작으로 해준(18)군, 수(16)양, 성진(13)군, 성은(10)양, 성실(5)군을 뒀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성우다. 이승은

江原日報
2023년 08월 07일 (월)
지역 16면

화천토마토축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브랜드 가치 재확인 평가

◇2023 화천토마토축제 이틀째인 지난 4일 관광객들이 토마토풀장에서 '황금반지를 찾아라'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화천=박승선기자

화천토마토축제가 농업인을 비롯해 소상공인, 군장병 등 참여 주체들에게 모두 만족을 준 상생축제이자 경제축제, 산업축제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화천 사내면에서 열린 토마토축제는 수도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악산 토마토'의 명품 브랜드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인 이벤트인 '황금반지를 찾아라'에 파지용 토마토가 사용돼 농업인은 과외 수입을 거뒀으며 이기자부대 해체 이후 어려움을 겪던 사내면의 상가와 숙박업소는 모처럼 특수를 누렸다. 더욱이 15사단 승리부대가 '승리부대 장병의 밤' 행사를 열고 군장비를 전시하는 등 역대 어느 때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화천토마토축제에 모두 10만7,300여명이 다녀갔으며 직접 경제 효과가 64억원을 상회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박대현 도의원, 류희상 군의원은 "토마토 생산 농가에 소득을 주고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준 대박 축제였다"고 평가했다.

강현우 15사단장은 "사단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군수는 "토마토축제는 농업인과 주민, 군장병, 소상공인들이 상생하는 것은 물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준 축제"라며 "글로벌 축제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천=장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인물 23면

강원특자도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1위 춘천 성수고

청소년들이 마약예방캠페인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립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5일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2023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 정책제언대회를 열었다. 도내 만 9~24세 청소년 36개팀이 지원한 이번 대회에서 10개팀이 본선에 진출, 이날 열띤 발표를 한 끝에 3개팀이 최종 수상했다. 1등은 춘천 성수고 믿음소망사랑팀의 '숏폼 등을 활용한 마약예방 캠페인', 2등은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영월군청소년참여위원회 A팀의 '청소년 졸업예정자를 위한 자기계발 이수제 및 사회초년생 자립지원프로그램', 3등은 춘천YMCA 춘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팀의 '강원형 알뜰교통카드'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팀은 각 100만원, 70만원,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청소년수련시설 빗물저금통 설치 △청소년 척추측만증 거북목 예방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청소년 생존수영·기초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정서 코칭·치유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교시 체육활동

2023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제언대회

△디지털 윤리교육·문화카드 연동 오프라인 문화체험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심사는 박윤미 도의원과 이수인 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장, 선정은 도청소년팀장, 김미영 춘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기웅 서울구립서초유스센터 관장이 맡았다. 선정 정책들은 오는 30일 도의회에서 진행되는 정책전달식을 통해 도, 도의회, 도교육청에 전달, 향후 청소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1위를 한 윤의빈(춘천 성수고) 학생은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받는 입장으로서 느낀 개선점을 제안한만큼 최대한 반영해주시면 좋겠다"고, 같은 팀 김태규 학생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주영

江原日報
2023년 08월 07일 (월)
지역 14면

태백 황지야시장 개장식 태백 황지야시장 개장식이 지난 4일 시장북길 차 없는 거리에서 고재창 태백시의장, 김정윤 태백부시장, 이경숙 태백시의회 부의장, 문관현 도의원, 우상훈 황지시장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지역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속 무대 누비며 추억 한 아름

신현태

본지·평창더위사냥축제위 주최
효석문학 100리길 걷기 행사
주민·관광객 참가 화합의 장

▲ 2023 '효석문학 100리길 걷기' 행사가 6일 오후 평창더위사냥축제장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사와 평창더위사냥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화향우회가 주관한 '2023 효석문학 100리길 걷기' 행사가 6일 평창더위사냥축제장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이날 걷기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평창더위사냥축제장을 출발, 대화천 데크로드를 따라 광천선굴 입구까지 3㎞를 왕복하며 건강을 다지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효석문학 100리길은 봉평면 효석문화마을에서 평창읍 평창올림픽시장까지 53.5㎞의 5개 구간이다.

이날 행사가 열린 코스는 용평면 여울목에서 대화면 땀띠공원까지 이어지는 2구간 '대화장터 가는 길'의 일부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무대여서 참가자들은 소설속 장면을 연상하며 문학의 감흥에 젖었다.

개회식에서 황성현 평창부군수는 "평창더위사냥축제와 함께 열리는 걷기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현정 군의장은 "명품길 효석문학 100리길을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막바지 더위를 모두 사냥해 남은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지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걷기행사에는 황성현 평창부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최돈중 평창더위사냥축제위원장, 최종훈 대화향우회장을 비롯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걷기에 이어 축제장에서 기념품 배부와 지역의 각급 기관 사회단체들이 후원한 경품 추첨 행사를 열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현태

sht9204@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8월 06일 (일)
사회

[포토뉴스]'안전한 수산물' 판매활성화 위한 한마음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회장:김영준)가 주관한 '안전한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대회가 지난 4일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이철규 국회의원, 김기하.김기철 도의원, 최명관 동해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06일 (일)
종합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원제용.이승진 도의원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춘천).원제용(원주).이승진(비례) 도의원은 7일 오후 3시30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2023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갈라쇼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종합 02면

'공직 부적합자 거른다' 공채 면접인원 늘린 강원도

응시자 6657명 경쟁률 7.45대 1

공채 인기도 시들·MZ 이탈 감안

적격성 검증 차원 면접심사 강화

강원도내 MZ세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과 맞물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첫 시행된 8·9급 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인기도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이같은분위기 속에서강원특자도는 '공직에맞는응시자'를선발한다는이유로채용인원의120%를선발,면접심사를 진행했다.면접을 통해 20%는 걸러내겠다는 것이다.과거 면접시험이 사실상 요식행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달라진양상이다.

6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 올해강원도지방직 공무원 8·9급 공개경쟁채용 현황은접수인원이 6657명이고,이 중 선발 인원은 894명이다. 경쟁률은 7.45:1이다.이는최근3년간가장낮은 수치다.지난 2021년강원도지방직 공무원 8·9급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경쟁률은8.89:1로최근3년간가장 높았다. 지난 해에는8.85:1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3일치러진면접에참가한도내 지자체 1년차 현직 공무원인 A 모씨(24)는 "(현재 근무지의)지역 생활시설이 너무 열악했고 작은 평수의 방값도 50만원에 육박했다"며 재시험을 치른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을 떠났다가 왔다는 B 모씨(28)는 "조직 내 텃세가 심해 1년차에 공무원을그만뒀지만 취업을준비했던 분야가 공직뿐이라 돌아오게 됐다"고 했다. 부모님과 동행한 최 씨(26)는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어 공무원 시험을준비했다"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따르면지난해자발적으로퇴사한근무경력 5년미만공무원(국가직·지방직)은 1만3032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도청및18개시·군의3년미만저연차공무원면직자의 경우, 2020년 92명에서 2021년 123명, 2022년 10월 129명으로 늘고있다.

MZ세대의공무원기피와이탈이가속화되자 강원특자도는 공직 적격자 선발에집중하고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인성과 기본자질,공직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면접 전형을 강화했다"고밝혔다.기술직을응시한이모씨(25)는 "예년과달리 전문지식을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했고, 김 모씨(24)는 "지역 현안을비롯해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고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종합 02면

도, 6조원 규모 접경지역 발전계획 변경안 제출

강특법 특례 등 여건 변화 반영

신규 44개 추가 총 141개 사업

행안부, 10월 최종 계획안 확정

▌도내 접경지역 발전계획안 변경안

변경 주요 내용

- 당초 134개 사업·5조 8000억원 ▶ **변경 141개 사업 · 6조원**
- 주민 희망 신규사업 **44개**
- **춘천**(소양8교 건설, 공지천 보행환경 개선 등)
- **철원**(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복합스포츠타운·태봉 스포츠 파크 등 조성)
- **화천**(민군상생복합타운,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등)
- **양구**(소양호 호수권 관광시설, 펫토피아, 국토정중앙 XR 체험관 등 조성)
- **인제**(한국형 은퇴자공동마을, 소양호 자연생태체험, 활력센터 등 조성)
- **고성**(간성 신활력 복합타운, 아트케이션 거점공간 등 조성)

변경 방향

-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도정목표**(인구 200만·지역총생산 100조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실현**
- **거점산업 육성**(생명산업·경제특구 및 특화발전지구 조성)
- **생태관광**(DMZ 관광자원 및 군유휴시설 활용)
- **정주개선**(철도역 주변 일자리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4대 핵심규제(국방·산림·농지·환경) 완화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등 대내외적 변화와 맞물려 강원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141개 사업, 6조원 규모로짜여졌다.

행정안전부는 강원 등 각 접경지역이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강원도와 경기도,인천시 등 낙후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한만큼 강원 접경지역에 배정될 사업과 예산 규모 최종확정이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발전계획안 변경안으로 141개 사업,6조원 규모를 최근 행안부에 제출했다. 현행 134개 사업, 5조 8000억원에서 소폭 늘게 됐다.

강원특자도가 접경지역 발전계획 변경안으로 재설정한 방향은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도정목표 실현 △거점산업 육성 △군 유휴시설 활용 등 생태관광 △정주개선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변경계획안은 강원특별법에 담긴 4대 핵심규제 완화 및 권한이양, 17년 만에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과 맞물려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각 사업이 짜여졌다. 또, 오는 2027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한 접경지역 핵심 교통망이기도 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도 계획안에 담겼다.

이번 계획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희망한 신규사업 44개가 추가됐다.

춘천의 경우, 소양8교 건설과 공지천 보행환경 개선 등이 철원은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을, 화천은 민군상생복합타운,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등이다. 양구는 소양호 호수권 관광시설, 펫토피아 조성 등을, 인제는 한국형 은퇴자공동마을, 활력센터 조성 등이 꼽혔다. 고성은 신활력 복합타운, 아트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역 발전계획 변경안을 통해 강원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강원특별법에 담긴 4대 핵심규제 완화와 권한이양은 물론 접경지역의 거점산업육성, 비무장지대의 관광벨트 조성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관련, 행안부는 강원과 경기, 인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13조2000억원 규모로 225개 사업을 추진한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지역 10면

장기 방치 옛 원주역 '철도정원' 만든다

11일 원주시-코레일 업무협약
도심 속 휴식공간 상권 활성화
역사 리모델링 유명 커피숍 유치

장기 방치 중인 옛 원주역 일대 활용이 본격화된다.

원주시는 오는 11일 코레일과 학성동 옛 원주역 일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이를 통해 시는 옛 원주역 일대를 대상으로 구상해 왔던 활용책을 시설 및 부지별로 유상 또는 무상 임대받아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가 구상한 전체적 활용책은 '철도정원'이다. 센트럴파크 개념으로 시민에게 도심 속 다양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26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이용객은 물론 일대 상권 활성화 편의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도심 속 정원인 만큼 진입광장 및 잔디마당 조성, 새로운 나무 식재 등이 이뤄진다. 택시 쉼터, 흡연 부스 등도 조성된다.

특히 옛 원주역사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변모한다. 시는 기념품 숍을 마련, 최근 속속 출시 중인 새로운 원주관광 기념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유명 커피숍(커피공장)을 유치, 문을 열 계획이다. 유동인구 유입의 새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옛 원주역 앞 견인차 사무소 부지에는 반도체 교육센터가 건립된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6년부터 운영된다. 여기에 옛 원주역과 연결되는 치악산 바람길숲이 올 연말 완공된다. 교육센터 이용자, 치악산바람길숲 탐방객 유입으로 침체된 옛 원주역 일대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옛 원주역 일대 개발은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동해 장기 침체되고 있는 학성동 일대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태욱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지역 09면

근화동 역세권 개발사업 내달 예타신청 고심

물가 상승 등 신청시기 미지수
내달초 참여기관 기본협약 체결
시립미술관·숙박시설 구축 등
미래형 거점공간 조성 만전

속보=춘천역 일대를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이 진행(본지 6월 14일자 13면)중인 가운데 춘천시가 내달 예비타당성 신청을 앞두고 '신중모드'에 돌입했다. 예타 기회가 사실상 한 번인 데다 현재로서는 자체 분석한 비용대비 편익(B/C)이 낮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철도공단(KR)과 함께 춘천역 인근인 근화동 499-1번지 약 51만㎡ 부지를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로드맵 상 내달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신청할 전망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연말쯤 예정됐다.

그러나 예타 신청이 내달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자체 예타를 분석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 여파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경제성이 하락하는 점도 문제다. 예타에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해당 사업이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시는 예정된 9월 예타 신청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예타 신청을 받고 있어 9월이 될지 9월 이후에 신청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한 번에 통과해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신중히 KR측과 계속 자체 B/C분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춘천시는 예타 평가 시 참여기관 추진 의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만큼 늦어도 내달 초까지 참여기관과 기본협약도 체결한다.

역세권 개발사업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과 춘천대교~공지천조각공원까지 부지 51만㎡ 대상으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의 미래형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 개발 부지에는 춘천시립미술관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도 타진 중이다. 호텔 등 숙박시설 부지도 기본구상에 넣었으며, 아파트와 단독주택 부지도 포함됐다. 철도부지 인근에는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와 연계한 환승센터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각각의 부지 위치는 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유동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1호 역세권 개발 사업인 만큼 미래형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종합 02면

도, 재난안전특교세 1억2500만원 확보…폭염 대응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가 폭염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한 가운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2500만원을 추가 확보, 실내 무더위 쉼터에 냉수 및 냉방용품을 공급하며 폭염 대응에 나선다.

도는 실내 무더위 쉼터(1332개소)와 폭염피해저감시설(972개소)의 기능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시·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도내 공공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 주말에도 주민들이 해당 공공시설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 독거노인과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은 재난도우미를 9669명을 매칭해 1일 1회 폭염 안부전화 및 건강확인에 나선다.

이밖에 야외 근로자 및 고령 농업인의 폭염시간대 야외 작업 예찰을 강화하고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 계도활동에 집중한다.

한편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8월 07일 (월)
사회 04면

역대급 폭염 1주일째… 道 대응 강화나서

무더위 쉼터·그늘막 등 일제점검… 냉수·냉방용품 공급

강원특별자치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강원자치도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달 31일 선포돼 지속 중인 폭염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8개 시·군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과 협업, 1,332곳의 실내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972곳의 폭염피해 저감시설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방문건강관리사,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등 9,669명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활용, 폭염 취약계층 24만9,159명에게 하루 1회 이상 폭염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을 확인하고 있다.

도 전역에 설치된 2,346곳의 마을방송과 재난 예경보시설을 활용해 수시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도민에게 전파하고 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2,500만원을 추가 확보, 실내 무더위 쉼터에 냉수와 냉방용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일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내 홍천강 별빛음악축제장을 방문, 무더위 쉼터 2곳의 운영을 확인하고 대형선풍기 30대, 아이스박스 17개를 배치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인 오는 15일까지를 '2023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내수면 계곡 및 유원지 7개 시·군 2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물놀이 장소에 안전요원 585명을, 6개 시·군 86개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603명을 각각 배치했다.

김진태 지사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행정력을 동원,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종합 04면

전국서 가장 더운 강릉?…"관측소 위치 따라 기온 큰 차이"

도심·바닷가 관측소 기온차 문제 제기

기상청 "주민생활권 밀착정보 제공"

edge 강릉이 연일 밤낮으로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곳으로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 도심 관측소 위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4일 강릉의 밤 사이 최저기온은 30.7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3일 낮 최고기온도 38.4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기록됐다. 1911년 강릉 기상관측 이후 역대 두번째 더운 날 이라는 등 찜통 더위가 가장 심한 곳이라는 뉴스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강릉으로 발표되는 기온 관측 자료는 옛 기상청이 있던 도심 용강동 관측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현재 기상청이 자리잡고 있는 북강릉관측소와 바닷가 강문 관측소의 기온 값은 도심과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강릉의 낮 최고기온이 38.4도를 기록한 지난 3일 북강릉은 35.6도, 강문은 36.9도에 그쳤다. 4일의 경우 용강동은 37.1도를 기록했으나 북강릉은 34.5도, 강문은 35.2도를 기록했으며, 5일의 경우 용강동 37.3도, 북강릉 34.7도, 강문 35도에 머물렀다.

관측소가 바닷가 언덕에 있는 인근 동해시와 비교하면 기온차가 더 확연해진다. 동해시는 3일 낮 최고가 35.7도, 4일은 34.9도, 5일 33.5도 였다. 경계를 맞댄 동해안 이웃 도시인데도 밤 최저기온 차이가 심하게는 5도 이상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관광·음식업계 등은 "관측소 위치에 따라 기온차가 너무 크다"며 "강릉이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인식돼 피서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용강동 관측소의 경우 이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주민 생활권의 밀착형 관측정보를 제공,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더 높은 기온만 주목을 받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연제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사설/칼럼 19면

소비자물가 강원 최고 언제까지

-관광 최대불만족 물가, 단순한 캠페인으론 극복 어려워

잦은 비와 계속된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식탁의 필수 김치를 담그기 망설일 정도로 배춧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8월 배추 도매가는 7월 평균가격에 비해 두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무, 대파, 양파 등 각종 부재료 가격도 올라 김치를 두고 하소연이 나옵니다. 시금치와 상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최근의 배추 가격 상승은 병해로 인해 산지에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병해가 확산할 경우 작황 부진으로 이어져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지역 7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2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는 111.20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 111.09, 경남 111.37, 전남 111.56입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는 111.25에 머물러 있는데 비하면 유난히 강원은 높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해 공개한 '22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강원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숙박여행지로 등극했지만, 만족도는 81.8점으로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광지 물가에 대한 만족도는 68.2점으로 70점에도 도달하지 못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물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관광기념품 및 특산물 쇼핑도 76.2점으로 낮습니다. 자연경관 88.6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월 발표한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물가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68%는 농촌관광을 선호하지만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37%, 숙박 등 시설 인프라 확충 43%가 개선을 바랐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이유의 17%는 바가지요금 등 높은 물가였습니다.

물가 안정도는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층일수록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가가 높은 지역에 타지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불 보듯 합니다. 일과 관광 모두 가능한 워케이션 지역으로 선호하는 조건에 물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여가·관광업계에 합리적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물가는 주시하는 요인입니다. 단순한 캠페인으로 극복이 어렵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관리와 안정을 위해 취하는 각종 정책과 조례 등을 살펴 강원지역 고질적인 고물가 문제를 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07일 (월)
사설/칼럼 19면

한국전쟁 영웅 김동석 재조명해야

-미국 정부 선정 '4대 영웅', 강원과 깊은 인연

올해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구상 가장 긴 정전체제로, 아직 냉전의 유산과 상처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긴장과 반목의 한반도 문제 해결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쟁 4대 영웅으로 꼽히고 있는 고 김동석 대령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김 대령은 한국전쟁 이후 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민족상잔의 아픈 과거를 되돌아보고, 한반도 평화를 구상하기 위해서도 김 대령에 대한 연구와 추모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전쟁 4대 영웅으로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장군, 매슈 리지웨이 장군, 백선엽 장군, 그리고 김동석 대령을 선정했습니다. 김 대령은 일제강점기 광복군으로 복무했으며, 광복 직후 김구 비상국민회의 부의장의 수행비서와 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1948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국군으로 재입대했고, 임관 이듬해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수도경비사령부 제17보병연대 중대장으로 곧바로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광복군과 국군에서 활동한 흔치 않은 이력으로 애국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정보부대의 전설'로 통한 그는, 육군 첩보부대에서 지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에 필요한 결정적인 첩보를 수집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맥아더 장군에게 즉시 보고되면서 맥아더 장군과 유엔군 내부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큰 신뢰를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맥아더장군은 김 대령을 "This Man"으로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전역 이후엔 삼척군수, 강릉시장, 속초시장을 거치며 강원도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수 진미령의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에 걸맞은 위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더욱 높이 평가받습니다. 미군 군사(軍史) 기록에 따르면 그는 UN군 10만명 이상,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수십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시장 군수를 맡아 전쟁 이후 재건에 힘쓰며 지역 행정에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다소 늦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그의 활동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애국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 대령을 기릴 의미 있는 노력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07일 (월)
사설/칼럼 19면

도 출신 의원들, 9월 정기국회서 치열함 보여야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는 의원들의 마음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쏠려 있어 가뜩이나 부실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을 파고드는 치열함을 보여야 한다. 강원자치도가 출범한 이때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찾아야 한다. 주민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기 때문이다. 국정 현안을 살피면서도 지역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소속 정당과 정파가 다르다고 해도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강원자치도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다. 강원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고 자치도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다. 강원자치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발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원자치도의 주요 현안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정상적인 착공,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 자립기반 완성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 평택~삼척 고속도로 개통, 용문~홍천과 원주~춘천 T자형 연결 철도망 구축 등 산적해 있다. 이 현안들은 기필코 매듭지어야 한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에 묶여 있던 강원자치도는 그동안 '시대적 보상'이 아닌 당연한 '자율적 권리'의 몫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자치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 규제 철폐는 환경 훼손'이란 국민적 개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오히려 환경이 보전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강조,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강원자치도 출범으로 환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풀어내야 하는 부분들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지역 정치권은 변화의 시기에 제기되는 중요한 현안의 가닥을 잡고 국가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동시켜야 한다.

> 국정 살피면서도 지역 문제 관심을
> 접경·폐광지역 활성화 등 현안 산적
> 정파 초월 응집력과 적극성으로 역할 찾을 때

이에 소위 실세란 타이틀을 달고 중앙정치권에서 인정받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한 지금,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어우러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강원자치도의 힘을 한곳으로 집결시킬 정치력이 요구된다. 모두가 지역 현안 해결과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강원자치도의 현안들은 중앙정치권의 지원 없이는 해결이 난망한 사안들이다. 강원자치도의 수도권 종속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보다는 강원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의 정책 응집력과 적극성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역동성과 구심력의 부재가 정치적 공복감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야 할 때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07일 (월)
사설/칼럼 19면

'묻지마 범죄',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내 원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새벽 2시18분께 '6일 오후 6시 원주역에서 반려동물을 흉기로 찌르고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혐의다. 서울 신림동 사건 이후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건 보도를 보고 유사 범죄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모방 범죄 추가 발생 가능성에 가급적 외출이나 늦게까지 다니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겨냥한 위협성 게시물이 쏟아지면서 경찰의 경계 태세가 강화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원주역뿐만 아니라 분당 오리역, 부산 서면역, 잠실역, 한티역, 강남역 일대, 용산 등 언급된 장소 인근에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순찰이 대폭 강화됐다.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계도 고객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공장소의 묻지마 흉기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테러 행위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형사 처벌을 통해 모방 심리 확산을 막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 이에 편승해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작성자를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묻지마 흉기 테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권력의 위상을 분명히 세우고 예방 치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와 예고 글이 확산되는 원인도 살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림동 사건 용의자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분노형 범죄였다. 경기 성남 서현역 사건의 용의자는 피해망상을 보였고,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교사 습격 사건은 면식범에 의한 원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역 살인 예고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물리적 대응만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사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